



코스피	2416.50 (0.00)	코스닥	836.78 (0.00)
금리 (미국 3년)	0.943 (+0.012)	환율 (원/달러)	1120.40 (-7.80) (6일)



[뉴스]
현대차
'허위·비방' 유튜브
법적 대응
02

이통사, 코로나에도 3분기 호실적 脫통신 전략 통했다 미디어·IPTV사업 등 플랫폼사 가속 페달

이동통신 3사의 올 3·4분기 성적표는 비(非)통신 사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특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터넷 TV(IPTV)가 성장 주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향후에는 기업 간 거래(B2B) 등 전통적 통신 사업을 벗어난 신사업 영역에서의 성과가 더욱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도 실적 선방한 이통사... IPTV 성장 가속화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KT를 끝으로 이동통신 3사의 3·4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이동통신 3사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다만, KT의 경우 부동산 사업 등 자회사의 타격으로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본사 실적만 보면 선방했다는 평도 나온다.

SKT, 매출 4.7조 영업익 3615억
미디어 등 신사업 영업익 1000억

LGU+, 매출 3.3조 영업익 2521억
올해도 IPTV 누적 수익 1조 전망

KT, 실적감소에도 누적 '1조 클럽'
데이터센터 통해 B2B공략 본격화

SK텔레콤은 연결 기준으로 올 3·4분기 매출 4조7308억원, 영업이익 361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19.7% 증가했다. LG유플러스도 올 3·4분기 매출 3조3410억원, 영업이익 252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60.6% 증가한 수치다.

반면, KT는 올 3·4분기 연결기준 매출 6조12억원, 영업이익 292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6.4%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영업이익은 1조173억원으로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3·4분기 실적을 분석해보면, 코로나19로 집에서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동통신 3사 모두 미디어와 IPTV 분야의 성장이 눈에 띄었다.

특히 SK텔레콤은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의 사업에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뤄냈다. 특히 미디어 사업의 경우 티브로드 합병 효과 등이 반영돼 전년 대비 20.3% 증가한 966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가입자가 전분기 대비 12만9000명 증가해 9월 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850만명을 기록했다.



서울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 휴대전화 판매업체 모습. /연합뉴스

KT도 IPTV사업에서 가입자순증과 매출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IPTV 수익이 누적 8542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IPTV사업 성장세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 효과가 더해지는 가운데 최근 KT의 위성방송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또한 현대HCN 인수를 앞두고 있다.

◆이통사, 脫통신 행보 본격화... 각 사 전략은

미디어뿐 아니라 기업 간 거래(B2B) 등 신사업 매출이 확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탈(脫)통신' 행보는 향후에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최근 이동통신사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전환 의지를 밝히거나 '텔레콤'을 때는 사명변경을 예고하며, 어느 때보다 탈통신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 신사업 구축에 방점을 찍은 SK텔레콤은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신사업에서 역대 최초로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향후 앱마켓 '원스토어'를 시작으로 ADT캡스, 웨이브, 11번가 등 자회사들이 잇따라 상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내년 10월 경기도 일산과 서울 가산동에 대규모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개소할 예정이다.

새로운 B2B 브랜드인 'KT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한 KT 역시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사업의 3분기 누적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 증가했다. KT는 지난 4월 13번째 데이터센터를 용산에 오픈해 본격적인 B2B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5G 기반의 B2B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글로벌 주요 통신사들이 참여한 'XR얼라이언스'의 의장사로서 AR·VR 콘텐츠 수급 확대 관련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바이든, 승리 선언... "통합의 대통령 될 것"

美 대통령 선거 대국민 연설 갈등 봉합, 코로나 극복 전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7일(현지시간) 오후 대국민 연설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오후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웰링턴에서 승리 연설을 갖고 "미국이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모든 미국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연설에서 바이든은 '하나의 미국'을 강조했다. 대선 기간 더욱 커진 갈등을 봉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라는 선언이다. 바이든은 승리 연설에서 "민주당원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통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합시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와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고 우리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바이든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전문가와 과학자를 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웰링턴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령직 인수위원회 요직에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이후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노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또 "정치적 예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우리 모두가 요구하는 공정한 기회를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존중과 예의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미국을 향해 나아가 것"이라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그만두지 않

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해 동맹국마저 등 돌리게 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외교 노선도 천명했다. 바이든은 "미국이 전 세계의 등대라고 믿는다. 미국이 다시 세계로부터 다시 존경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바이든은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불복' 선언을 한 가운데 갈등 수습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이 서둘러 거짓 승자 행세를 하고 있다"라며 오는 9일(현지시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언에 따라 일부 경합 지역은 검표와 소송까지 끝내야 한다. 지난 200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는 플로리다주 득표수를 두고 다툰 연방대법원의 판결까지 간바 있다. 당시 당선인이 확정되기까지 무려 5주가 걸렸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와 함께 델라웨어주 웰링턴에서 열린 당선 축하행사의 무대에 나란히 서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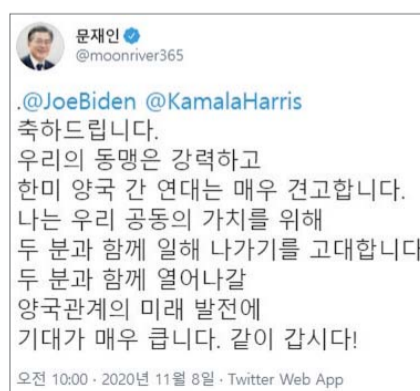
文 대통령 "한미 동맹은 강력... 같이 갑시다"

SNS 통해 바이든에 축하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7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가 대표적인 경합 지역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승리하면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일제히 보도한 뒤 나온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8일 SNS를 통해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미국 대통령 선거 승리와 관련해 트위터에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이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바이든·해리스 후보에 보낸 축하 메시지에 '당선'이라는 단어는 넣지 않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해리스 후보 당선 보도와 관련 불복 선언한 점을 고려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문 역할 한 만큼 한쪽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형세다. 이를 고려해 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축하 메시지는 보내되 '당선'이라는 민감한 단어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합법적 투표만 계산된다면 이번 선거에서 나는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이번 선거는 부정부패가 확인된 전례 없는 사례"라며 대선 불복 선언을 했다. 1896년 대선 이래 패자가 승복 메시지를 낸 전통이 처음으로 깨진 것이다. /최영훈 기자